

호국보훈의 달 대표기도문 (6월)

호국보훈의 달 대표기도문 (6월)

매년 6월은 우리나라의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심어린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대표기도문 1 - 감사와 추모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2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숨 쉬며 살아갈 수 있음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호국영령들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일제강점기 어둠 속에서도 조국 광복을 위해 몸바쳐 싸우신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치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베트남 전쟁부터 지금까지 해외에서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국군장병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평화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성실한 국민이 되게 하소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소서. 우리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고,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국보훈의 달 대표기도문 2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구

“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3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길로 나아가며,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정치인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나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며,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져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소서. 부패와 불의가 사라지고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갈등과 분열보다는 화합과 단결의 정신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특히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분단된 조국이 평화통일을 이루어 한민족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시 한번 평화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 약한 나라들을 도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국보훈의 달 대표기도문 3 - 국군장병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9)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전방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국군장병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혹독한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나라를 지키는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고 보호해 주소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모든 장병들과 의무경찰, 전투경찰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소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사고와 부상 없이 무사히 복무를 마칠 수 있게 하소서. 특히 DMZ와 서해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평안을 주소서. 국방부 장관부터 일병까지 모든 군 간부들이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게 하소서. 상하급자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군대 문화가 정착되게 하소서. 군 복무를 통해 젊은이들이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보훈가족들, 특히 전사자 유족과 상이용사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베풀어 주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싸매어 주소서. 사회 전체가 이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문화가 자리잡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평안히 예배드릴 수 있음도 이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새기며,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국보훈의 달 대표기도문 4 - 평화통일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4)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분단 70여 년의 세월 동안 갈라져 있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 핏줄이면서도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남북한 동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북한 땅의 동포들이 굶주림과 억압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층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남북한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좁혀나가며,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분단의 아픔을 딛고 통일된 조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 하소서. 학교에서 올바른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게 하소서. SNS와 인터넷 세상에서도 건전한 국가관을 갖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6월 현충일과 625 전쟁일을 맞아 온 국민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게 하옵소서. 보훈병원과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후세에 전하게 하소서. 언젠가 DMZ에 평화의 꽃이 피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일하며 웃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통일된 조국에서 8천만 겨레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더 자세한 기도문과 예배 순서는 [주일예배 안내] (<http://klmc.church/klmc/worship/sunday-worship.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